

박물관과 보존과학

정 양 모

한국미술사발전연구소장, 경기대학교 석좌교수

머리말

박물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文化財의 수집과 보존, 전시, 교육, 홍보 등이라고 하겠다. 그중에서도 소장유물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모든 박물관에서는 소장 文化財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잠시라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보존과학자들은 문화재 보존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를 비롯하여 이에 대한 치료와 복원을 담당하는 문화재 전문의사이다. 따라서 사람 사는 지역마다 병원이 있듯이 문화재가 있는 박물관에 보존과학자가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의 무사항이라 할 것이다. 보존과학자의 손을 통해 썩고 병든 문화재가 영구 보존되며 나아가 박물관 전시실에서 새 빛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문화재 보존과학은 다양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우선 과학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술사적인 지식과 소양을 가지고 문화재를 통해 옛사람들의 멋 과 기술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읽을 줄 알아야 하며, 나아가 옛날 미감과 어울리는 복원기술 을 체득하고 있어야 비로소 훌륭한 보존과학자가 되는 것이다.

보존과학이 박물관에 기여하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나는 우선 박물관에서 일생을 보낸 사람으로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창립 10 주년을 맞이하여 문화재 보존에 고군분투 하고 계 신 여러분에게 무한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그리고 국립박물관 재직시절 “보존기 술실” 설립에서부터 1999 년까지 보존과학을 이해해 보고자 보존과학실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 발전방법을 상의하고 조그만 노력을 경주해 본 입장에서 박물관 업무와 보존과학 의 역할 관계를 간략히 재조명하고 박물관 보존과학실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1. 박물관에서 보존과학의 역할

박물관에서 보존과학이 해야 할 역할은 무궁무진하며 그 모두가 또한 한결같이 중요하다. 이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소장 문화재의 영구 보존을 위한 과학적인 지원

보존과학은 먼저 문화재를 유해환경(有害環境)으로부터 보호하는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 즉 소장유물이 가장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조건을 확립하고, 이러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한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도심에 소재한 박물관 유물을 엄청난 공해로부터 여하히 격리 보존하느냐에 초점이 있다. 그밖에도 해충이나 곰팡이류 등의 침입 또는 발생으로 인한 생물학적 피해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일도 여기에 해당한다.

박물관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은 유물관리에 열의를 쏟으면 쏟을수록 더욱 절실해진다. 수납장에서부터 포장용 종이에 이르기까지 유물에 해를 끼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 재료는 가려 사용해야 하며, 연중 행사로 실시하는 일반 소독에 대해서도 수많은 종류의 문화재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지속적인 의문과 검증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근래 크게 증가한 각종 국내의 특별전시에 따른 문화재의 장거리 운송을 위한 안전한 포장과 운송법 등은 보존과학자가 새롭게 신경 써야 할 분야이다.

나. 보존처리 및 새로운 재료와 기술의 개발 연구

손상된 문화재를 직접 치료·수술하는 한편, 보다 안전하면서 효과가 크고 적용이 간편한 새로운 처리방법과 재료를 개발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보존처리 작업은 과학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오래된 그림이나 섬유제품, 목가구, 나전칠기 등처럼 우리의 전통기술(傳統技術)을 이해·습득해야만 가능한 분야도 많다. 그러므로 전통 재료(材料)의 특성을 조사하여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새롭게 개량(改良)하려는 연구와 함께 신소재(新素材)를 개발 적용하려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보존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문제는 그 연구 결과가 문화재에 직접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또 그 사용 결과(기술의 적합성 여부)는 오랜 기간이 경과하고 난 뒤에야 나타난다는 점 등 제한 요소가 많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발표자는 잘못된 보존처리로 인해 문화재의 생명이 오히려 단축된 예를 수 없이 보아왔다. 대부분 현대 과학기술과 재료만을 맹신한 데서 온 결과라고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문화재 보존의 성공 여부는 오랜 경험을 통해 체득한 노우하우(Know-How)가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훌륭한 보존과학자가 되려면 전통기술과 현대 과학이라는 두가지 특성을 잘 조화시켜 활용하는 지혜를 터득해야 할 것이다.

다. 안전하고 다양한 전시유물의 설치 지원

박물관에 있어서 보존처리라고 하면 수장고 속에서 잠자고 있는 문화재를 최상의 상태를

지난 전시자료로 살려내어 세상에 공개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된다. 따라서 처리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며 처리된 유물을 다시 멋지고 생생하고 안전하게 전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배려해야 한다.

박물관 전시기법은 전시자료를 바닥에 그저 죽 늘어놓는 방법이 대중을 이루나 유물에 따라서는 벽에 고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예를 들어 벽화를 생동감 있게 전시하기 위해서는 눕혀 놓기보다 벽에 고정시켜 공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때 벽화를 안전하게 설치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러한 일 또한 보존과학자가 맡아서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전시실의 공조환경, 즉 진열장 내외부의 공기정화, 온·습도, 전시조명의 정도, 관람객들에 묻어 들어오는 미세한 먼지 등 실내환경 오염 인자들의 변동 상황을 항상 감시하여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일은 박물관 특성에 맞는 건축 마감공법과 공조방식을 연구 제안한다거나 진열장의 구조를 개선시키고 내장재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등 건축적인 분야에까지 보존과학 개념을 도입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스케일이 큰 일이다.

이밖에 전시를 위한 복제품을 제작하는 작업도 보존과학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복제품이란 걸만 유사한 모조품이 아니라 재료와 기법, 그리고 현재의 세부 질감과 상태까지 원 유물과 구별이 안될 정도의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복제품을 만들려면 대상 유물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고 풍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이 보존과학실이다. 과학 조사장비를 통해 얻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문화재 복원에 다양한 능력을 가진 보존과학자가 직접 만들거나 기술 지도한 복제품이 최고의 것이 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라. 고대 과학기술사 연구

문화재 구성물질의 산지(產地)와 특성을 찾아내고 당시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최대한 이용했던 고대인의 지혜와 과학기술, 재료의 이동 교역(交易)루트 등을 연구하는 분야로 고고학과 미술사 등에 도움을 준다.

위에서 언급한 보존과학 업무 중 현재 가장 중요한 분야는 역시 병든 문화재를 직접 치료하는 작업일 것이다. 따라서 보존과학자는 문화재의 재질과 손상의 원인 및 치료법을 알기 위한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지식과 함께 고고학·미술사적인 지식을 겸비한 머리를 가지면서 우리 보다 앞서 살던 분들의 예술적인 감각을 이해하여 옛 맛에 어울리게 표현할 수 있는 숙련된 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2. 국립박물관과 보존과학의 발자취

1970년대는 우리나라 발굴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이 집중되었던 시기로 평가된다. 1970년 무녕왕릉의 발굴을 시작으로 1973년 천마총 발굴, 그리고 1976년 신안해저유물 발견 등 엄청난 유적이 연이어 발견되거나 발굴되면서 수없이 많은 중요 문화재가 출토되었다. 이와 함께 문화재 보존처리의 중요성도 크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76년에 비로소 국립박물관에 “보존기술실”이 설치되게 되었다. 당시 박물관장이었던 고 최순우 선생이 박물관 학예원 가운데 이상수씨와 이오희씨 두 사람을 선별해 각각 일본 동경문화재연구소와 대만 고궁박물관으로 보내 1년간 철기유물과 도자기 처리기술을 연수시킨 뒤였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박물관 학예원을 새로운 분야 연구를 위해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일은 꿈도 꾸기 어려웠고, 더욱이 창설 후 외국산 처리장비의 구입 또한 매우 힘들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이는 최관장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두 담당 직원의 열정과 노력 없이는 얻을 수 없는 성과였으며, 특히 최관장께서 일찍이 보존과학의 중요성을 간파하시고 꾸준히 노력을 해 온 결과였다고 하겠다.

유학서 돌아온 두 사람은 보존실 창설이 늦어지자 각자 책상을 들고 당시 고고부 정리실로 사용 중이던 방을 점령한 후 “지금부터 이 방은 보존기술실이다.”라고 선포하고 근무에 들어갔는데 이 일을 최관장님 이하 여러 박물관 직원들이 모두 이해하였다. 창설 예산은 최관장께서 당시 김성진 문화공보부장관께 부탁해 해외공보관 운영예산을 전용할 수 있어서 가능했다.

그 후 국립박물관 보존기술실은 중앙박물관 직제 개편 및 수 차례에 걸친 박물관 이전 등의 계기가 있을 때마다 명칭을 “보존처리실”, “보존과학실” 등으로 수 차례 개칭하고 직제도 그 때마다 학예원에서 학예관으로 조금씩 격상되었고 1998년에 비로써 4급학예관의 담당부서로 증편되었다. 최관장님 뒤를 이은 고 한병삼관장, 그리고 본인 등 모든 역대 박물관장이 박물관에 직제개편이 있을 때마다 보존실을 우선적으로 배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지방소재 9개 국립박물관에 모두 하나씩 보존실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보존처리실의 양적 증가는 현실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며, 공사립 박물관에서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때 기본적인 방안은 모든 박물관 보존실이 같은 분야, 즉 예를 들어 종합병원 규모를 추구하기 보다는 지방의 특성에 알맞게 전문병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주박물관의 경우는 석조물이나 금속·토기 유물을, 전주박물관 같은 경우는 지류문화재 표장 등에 중점 투자하는 것이다.

국립박물관 보존실에서 배출된 전문인력으로는 현 호암미술관부설 문화재보존과학연구소장이오희씨, 서울역사박물관의 안병찬 등이 있으며 현재는 새로운 기관에서 보존과학실 운영을 이끌고 있다. 문화재 보존과학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10년이 걸려도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국립박물관에서 십여년 이상의 경험을 쌓아 온 베테랑들이 유출된다는 것은 박물관 차원에서 막중한 손실이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들이 현재 각자 몸담고 있는 곳에서 문화재 보존처리 일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3. 보존과학의 미래전망

박물관의 설립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관리하여 연구, 전시, 교육, 홍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박물관의 모든 기능도 문화재 보존처리 분야에서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박물관 실정은 별도의 정규직제도 없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보존처리 요원 몇 명만이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어렵게 해 내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국내에서 매년 새로 출토되는 문화재가 수천 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출토품을 응급조치 해야하는 등 보존과학자 몇 명이 이처럼 막중한 일을 계속해 왔다는 것은 사실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그러나 선배 보존과학자들의 노고와 함께 사회적 인식 또한 서서히 바뀌면서 보존과학자가 대접받는 시기가 도래했다. 국립중앙박물관 보존처리실은 내년에 용산 새박물관 이전준비를 위해 10여명의 새 요원이 증강될 예정이며, 이러한 인력증원과 함께 추후 독립된 부서로 증편시킬 계획 또한 있는 것으로 안다. 문화재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그 수가 줄어들어 가는 것이다. 출토되는 유물 또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간 많은 유적지가 발굴 또는 개발되었다. 개발에 따른 문화재의 피해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개발을 대폭 억제하여 매장문화재를 보존하고 우리 생명의 근원인 자연도 보존해야 할 절대절명의 시점에 와 있다. 이제는 현존하는 유물을 최대한 잘 보존하고 유지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도맡아 해야 할 학문이 보존과학인 것이다. 또한 보존과학은 그 분야가 갈수록 확대되고 깊이 또한 깊어지고 있다. 각 분야별로 잘 훈련된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이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요구되는 어려움이 있다.

문화재 보존과학은 비교적 신학문에 속한다. 따라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도 많고 또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뒤늦게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앞으로는 모든 유적과 문화재는 조사·발굴 시작 전부터 보존과학자가 참여하여 유적과 유물 보존관리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맺음말

끝으로 문화재 보존과 보존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우수한 보존과학자의 양성이다. 우선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보존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박물관 등 연구기관에서는 국내 외 우수한 교육기관에 전문인력을 파견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고고학, 미술사, 민속학 등 관계 학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존과학에 대한 올바른 확고한 인식이 필요한 때다. 그 인식은 모든 박물관, 미술관에는 반드시 우수한 보존과학자가 있어야 한다. 보존과학자는 학자이고 기술자이다. 그러므로 관계학자간 서로 상호 존중하여 긴밀한 의견교환과 자문을 통해 유물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박물관에서 보존과학이 하나의 독립부서로 존재하여야만 상호존중의 의미가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기서는 박물관의 유물관리를 위한 제언에 중점을 두었지만 문화재연구소와 박물관 보존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근본적으로 문화재연구소는 보존과학의 기본을 확립하는 일을 해야 한다. 실내외 문화재 보존관리에 가장 적합한 환경 조건과 유지방안을 제시한다든지, 수많은 문화재의 보존 수리시 재질과 상태에 합당한 방법과 약품을 꾸준히 연구 개발하여 항상 그 시점에서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재료와 약품이 사용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 등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박물관의 보존과학자들은 마치 병의원의 의사가 이미 개발되고 임상실험을 마친 최고의 약품으로 환자 개개인을 치료하듯이 문화재연구소에서 최상이라고 인정한 약품과 방법으로 소장문화재의 보존관리를 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